

‘씨름 괴물’ 맞네…영암 김민재 올 시즌 3관왕

‘의성천하장사씨름대축제’ 완승…통산 세 번째 천하장사
예능 ‘피지컬:아시아’ 우승…“방송 이후 관중 증가 체감”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아시아’에서 아시아 최강 피지컬을 입증한 김민재(영암군민속씨름단)가 모래판에서도 ‘괴물’의 모습을 보여줬다.

김민재는 지난 29일 경북 의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5 의성천하장사씨름대축제’ 천하장사 결정전에서 김진(증평군청)을 3-0으로 꺾어 완승을 거뒀다.

올해 설날·추석 장사에 이어 의성천하장사까지 3관왕을 차지한 그는 개인 통산 세 번째 천하장사와 통산 17번째(백두 14회·천하 3회) 장사 타이틀을 기록했다.

김민재는 이번 대회에 대해 “솔직히 부담이 컸다. 마침 방송 끝나고 관심이 많을 때 치르는 경기라 ‘방송하느라 운동 소홀했던 거 아니냐’는 말은 절대 듣고 싶지 않았다”며 “그래서 더 준비를 많이 했다. 다치지 않고 우승으로 마무리해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년은 김민재에게 특별한 해였다.

시즌 중 하루 부상으로 일부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3개월간 재활을 거쳐 정상 컨디션을 되찾았고, 이후 메이저 대회를 연달아 제패했다. 또한 최근 방영된 넷플릭스 ‘피지컬:아시아’에서는 한국 대표팀 일원으로 출전해 팀의 우승에 기여했다.

이번 방송 출연 계기에 대해서 “이번 기회로 씨름이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큰 고민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민재는 “씨름이라는 종목 대표로 나간 거니까, 내가 못하면 씨름도 같이 욕 먹을까 봐 그런 부담감이 좀 컸던 것 같다”며 솔직한 마음도 털어놓았다.

김민재는 방송에서 경험한 힘겨루기 미션들이 씨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힘을 써야 해 새로웠다고 말했다.

그는 그중 가장 힘들었던 미션으로 ‘돌장승 버티기’를 꼽았다.

등과 등을 맞댄 팀 대표 2명이 각자 무게 135kg인 돌장승을 잡고 쓰러뜨리지 않도록 버텨야 하는 종목으로, 김민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동작이었

고, 오래 버텨야 해서 힘 배분이 중요했다”며 “체력과 멘털을 동시에 시험하는 경기였다”고 돌아봤다.

한국 대표팀 중 가장 의지한 팀원으로는 종합 격투기 선수로 UFC에서 활약한 김동현을 꼽았다.

그는 “김동현 선배가 옆에서 전략도 잘 짜주시고 준비를 다 해주셔서 의지가 많이 됐다”고 전했다.

김민재는 방송 이후 현장 관중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다.

그는 “방송을 계기로 씨름을 처음 접한 분들이 많아진 것 같다. 한국 전통 스포츠인 씨름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간 날 때 한 번씩 씨름 경기도 보고, 선수들도 꾸준히 응원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전남 장흥 출신인 김민재는 초등학교 3학년 고내 씨름부로 활동하다 어린이 씨름 대회에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선수의 길을 걸었다.

장흥 관산초, 구례중학교 그리고 여수공고를 거쳐 울산대 재학 시절인 2022년, 37년 만에 대학생 신분으로 천하장사에 오르며 주목받았다. 이후 백두장사와 천하장사를 휩쓸며 ‘영암의 괴물’로 불리고 있다.

김민재는 씨름의 매력을 ‘직관성’으로 꼽았다.

그는 “씨름은 규칙이 단순히 눈으로 바로 결과를 알 수 있다. 몸 어디든 모래에 먼저 닿으면 지는 거라 룰도 간단하고, 누구나 살바만 잡으면 바로 해볼 수 있다”며 “그만큼 우리 몸에 익숙한 동작이라 접근성이 좋다. 또 한 판이 짧게 끝나니까 긴장감이 엄청나다. 어떤 기술을 쓰면 상대가 받아칠 수도 있고, 마치 바둑 두듯이 수 싸움하는 맛이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목표로는 전설적 선수들의 기록 경신을 내세웠다.

기록을 다 잡는 게 꿈이라고 전한 김민재는 “이만가·이태현 선수의 기록을 모두 따라잡는 것이 목표”라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꾸준히 좋은 경기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영암군민속씨름단 김기태 감독은 “민재는 고등학교시절부터 지켜봤는데, 대학 가서 자기 페이스



김민재(영암군민속씨름단)가 29일 경북 의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5 의성천하장사씨름대축제’ 천하장사 결정전에서 우승을 거둬 황소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민재 제공>

를 잘 찾아서 37년 만에 대학생 천하장사에 등극하는 그런 큰 업적을 쌓게 됐다. 워낙 파워나 기술 면에서 뛰어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자랑한다. 씨름

판의 보물로 잘 키워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방송 출연 덕인지, 지금 현장에는 거의 뭐 거의 만석이 이루어질 정도로 팬들께서 많이 찾아와주고 계신

다. 씨름 제2의 부흥기를 위해서 앞으로도 영암군민속씨름단도 더 열심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2일 서울 강남구 라움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 시상식에서 시상자 및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화 폰세-KT 안현민, 우열 못 가렸다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 공동 대상…‘43살’ KIA 최형우 기록상·오선우 에바치온상

한화의 코디 폰세와 KT 안현민이 ‘2025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 시상식의 주인공이 됐다.

폰세와 안현민은 2일 서울 강남구 라움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 시상식에서 공동 대상 수상자로 호명됐다. 올해로 17년째인 시상식에서 공동 대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폰세는 올 시즌 1.89의 평균자책점으로 17승, 0.944의 승률을 기록했다. 252개의 탈삼진도 뽑아내면서 역대 외국인 선수 최초로 ‘투수 4관왕’이 됐다.

그는 개막 최다인 17연승을 달성하고, 단일 시즌 최다 탈삼진 신기록도 새로 작성했다.

폰세는 지난 10월 24일 진행된 KBO 시상식에서 정규시즌 MVP 트로피도 차지했다. 개인 일정으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아내 엠마 폰세가 대리 수상했다.

2025 KBO ‘신인상’에 빛나는 안현민은 풀 타임을 소화한 첫 시즌에 대상 트로피까지 차지했다.

마산고를 졸업하고 2022년 KT 유니폼을 입은 그는 프로 데뷔 시즌이었던 2024년 16경기 출장에 그쳤지만, 올 시즌 112경기나 나와 0.334의 타율을

찍으면서 22홈런 80타점 72득점을 기록했다.

OPS(출루율 0.448+장타율 0.570) 1.018을 찍은 그는 WAR(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7.22로 리그 타자 1위를 차지했다.

최고 투수상도 LG 임찬규와 삼성 원태인의 공동 수상이었다.

임찬규는 3.03으로 국내 투수 중 가장 낮은 평균자책점으로 11승을 올렸다. 원태인은 3.24의 평균자책점으로 12승을 기록, 국내 선수 다승 1위다.

최고 구원투수상은 1.60의 평균자책점으로 5승 4패 30세이브를 수확한 SSG 조병현의 차지가 됐다.

최고 야수상은 키움 송성문이 받았다. 그는 올 시즌 전 경기에 나와 타율 0.315, 26홈런 90타점 OPS 0.917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최고 포수상은 0.337의 타율로 ‘타격왕’에 오른 두산 양의지가 받았다.

감독상은 LG의 통합 우승을 이끈 염경엽 감독의 차지가 됐다.

신인상 주인공은 LG 좌완 송승기였다. ‘중고 신

인’ 송승기는 올 시즌 28경기나 나와 144이닝을 소화하면서 평균자책점 3.50, 11승 6패를 기록했다. 눈에 띄게 기량이 발전한 선수에게 돌아가는 ‘점프업상’은 한화 문현빈이 받았다.

43살의 나이로 많은 최고령 기록을 작성한 KIA 최형우와 KBO리그 최고 구속 161.6km를 찍은 한화 문동주는 기록상 주인공이 됐다.

메이저리그(MLB)에서 한국 야구의 위상을 높인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특별상 수상자가 됐다.

NC 김주원은 집중력과 지구력이 뛰어난 선수에게 주어지는 조아바이트-에이(A)상을, 상무 한동희는 팀에 활력을 불어넣은 선수에게 주어지는 해파토스상을 받았다.

올 시즌 KIA의 새 전력으로 떠오른 오선우는 에바치온상 주인공이 됐다.

프런트상은 통합 우승을 이룬 LG가 차지했다. LG 박해민은 명품 호수비를 이어가면서 스포츠토토 포토제닉상을 수상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방신실



이동은

2026 LPGA 투어 출전권은 내 것

방신실·이동은·이정은 등 LPGA 켈리파잉 시리즈 파이널 출격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켈리파잉(Q) 시리즈 파이널 스테이지가 5일 막을 올린다.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의 매그놀리아 그로브 골프코스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5일간 90승 경기로 진행된다.

116명이 경쟁해 25위까지 2026시즌 LPGA 투어 출전 자격을 얻는다.

한국 선수로는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한 방신실, 이동은과 2019년 LPGA 투어 신인왕 이정은 등 8명이 출전한다.

방신실은 올해 KLPGA 투어에서 우승 3회, 준우승 2회 등의 성적을 내고 투어 통산 5승을 달성했다.

이동은은 올해 메이저 대회인 한국여자오픈을 제패했다.

이번 시즌 KLPGA 투어 비거리 부문에서 이동은이 261.1야드로 1위, 방신실이 258.7야드로 2위에 오르는 등 투어를 대표하는 2004년생 동갑내기 장타자들이 나란히 내년 시즌 미국 무대에 도전장을 던진 셈이다.

이정은은 2018년 당시 8라운드 경기로 진행된 LPGA 켈리파잉 시리즈를 1위로 통과, 2019년

메이저 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한 ‘톱 랭커’ 출신이다.

2019년 LPGA 투어 신인왕에도 오른 이정은은 올해 LPGA 투어 19개 대회에서 6번만 컷을 통과하는 부진 속에 다시 켈리파잉 시리즈를 치르게 됐다.

이들 외에 장효준, 주수빈, 애니 김, 신비, 윤민아도 2026시즌 LPGA 투어 출전권을 향해 5일간 경기에 나선다.

올해 KLPGA 정규 투어에서 사상 첫 중국 선수 우승 기록을 세운 리슈잉과 2019년 AIG 여자오픈 챔피언 사부노 히나코(일본) 등도 켈리파잉 시리즈 파이널 스테이지에 출전한다.

지난해 켈리파잉 시리즈에서는 올해 LPGA 투어 신인왕에 오른 아마티타 미유(일본)가 1위를 차지했고, 윤이나가 8위로 올해 LPGA 투어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또 박금강이 공동 10위, 주수빈이 공동 13위로 2025시즌 LPGA 투어에서 뛸 수 있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안나린과 유혜란이 1위를 차지했고, 2023년 이소미가 2위에 오르는 등 한국 선수들이 해마다 상위권 성적을 내왔다.

/연합뉴스